

‘영산강 살리기’ 8개 지자체 함께한다

나주시·목포 등 … 뱃길 복원 조속 추진·수질 개선 정부 건의도

나주시와 목포를 비롯한 영산강 유역 8개 자치단체들은 영산강 뱃길 복원과 수질 개선 등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8개 자치단체는 목포와 나주시, 담양과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장성군 등이다.

이들 8개 지자체는 9일 나주시 공 산면 황포돛배 선착장에서 열린 영산

강 유역권 행정협의회에서 뱃길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제택한 데 이어 친환경적 영산강 살리기 심포지엄 공동개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 중앙지원 공동 촉구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8개 시장·군수는 결의문을 통해 “영산강 뱃길복원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된다면 영산강 수질개선과

선 효과는 물론 영산강 치수를 통한 지역개발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신 영산강 브네상스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영산강 유역에 위치한 8개 지자체의 시장과 군수를 위원으로, 의회 의장을 자문위원으로 삼아 구성·운영되어왔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공교육비 민간부담 OECD국 중 최고

2008년 교육지표조사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교원 1인당 학생수 등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교원의 임금은 OECD 평균보다 높고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 조사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자원, 교육기회에의 접근·참여·발달·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분야에 걸쳐 각국의 교육환

경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총 36개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조사 대상 26개국(평균 5.8%) 중 3위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3%로 OECD 평균(5.0%)보다 낮고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9%(OECD 평균 0.8%)로 26개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제단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강운태 의원 무죄 선고

광주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60·광주 남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3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9일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확신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서명(52)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고,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강 의원이 어떻게 돈 봉투를 건네줬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서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성 있는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강 의원으로부터 수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서씨에게 빌려줬다는 강 의원 비서관의 주장

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러나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유죄가 의심스럽다 해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여론을 남겼다.

그러나 ‘돈은 건네진 것 같지만, 공소사실이 입증 안 됐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검찰의 입증 노력에 따라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 강 의원으로서는 아직 안심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9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당시 선거운동원인 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 5월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2006년(2만1천852명)에 비해 0.7%(152명) 늘어난 것으로,



한국 미용박물관 개관

국내 최초로 개설된 한국 미용박물관이 9일 문을 연 가운데 관객들이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세워진 미용박물관은 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하루 평균 60명 사망

암·뇌혈관·심장 질환 순… 20명 중 1명은 자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하루 평균 60여명이 숨졌으며, 암과 뇌 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또 전남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 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사망자 20명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총 사망자는 2만2천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2만1천852명)에 비해 0.7%(152명) 늘어난 것으로,

군(498.4명)보다 65.3%(325.4명)

나 많은 것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평균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전남은 또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인구 10만명당 27.4명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전국의 경우도 암과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암 사망자는 6만7천561명으로, 총 사망자(24만4천874명)의 27.6%를 차지했다.

자살 건수는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살자는 1만2천174명으로, 하루 평균 33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

“자금난 조선업계 지원해 달라”

해남군, 정부·여야·은행권에 건의문 전달

국내 중소형 조선소들이 자금난으로 선박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대한조선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해남군에 따르면 화원면에 조성된 대한조선은 4천억원 규모의 두 번째 도크건설을 위해 금융권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선소 운영과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남군은 대한조선의 이같은 경영 난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관련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9일 금융권과 청와대, 한나라당, 민주당,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방부, 산업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해남군은 건의서를 통해 “대한조선은 3조3천억원대의 선박을 수주해 놓고도 금융권의 대출심사 강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수주받은 선박을 계약기간내 건조하지 못할 경우 선주에게 막대한 금액의 폐널티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의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C&G그룹은 최근 후판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형 조선소의 영업 이익률 하락 가능성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감안해도 최소 10~15%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적자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하십시오

02-997-3000 www.pci.or.kr

언론중재위원회

光日만정

- 김종우



‘오늘도 무사히 ...’로...

光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업·모임·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 광주운행: 001-107-228160

◆농 협: 617-01-108334

*※에글주·(주)광주일보사

·직통: (062)227-9600

·FAX: (062)227-9500

분할합병 공고

(제권자 이의 및 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대상인쇄(이하 “갑”)과 회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을”)는 2008년 9월 1일 각 수수께끼 회의록(을은 그 영업을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 전 00137)과 부분과 소상인설공사(제991-3호 부분)는 그 분법된 부분과 (갑)이 합법하고 (을)은 존속하여 양자의 일자주주총회 결의에서 회성건설회사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합법에 이의가 있는 제권자 및 주권자는 본 권리 제작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갑” 상호: 주식회사 대상인쇄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남제동 대교로 196

대표이사: 윤 연 실

“을” 상호: 회성건설 주식회사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남제동 대교로 196

대표이사: 윤 영 섬

합병 공고

2008년 9월 9일 개최한 다음에 양 회사의 일자주주총회에서 (갑)은 대동증권건설 주식회사(이하 “갑”)와 회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을”)는 그 영업을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 전 00137)과 부분과 소상인설공사(제991-3호 부분)는 그 분법된 부분과 (갑)이 합법하고 (을)은 존속하여 양자의 일자주주총회 결의에서 회성건설회사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합법에 이의가 있는 제권자 및 주권자는 본 권리 제작일로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갑” 대동증권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남제동 수원로 658

대표이사: 정 은 주

“을” 주식회사 미광전력

광주 북구 우산로 378

대표이사: 이 은 진

공시 최고

아래기재 증서의 소지인이 공시최고기일인 2008. 12. 22. 14: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민일 이틀을 기준으로 권리와 증서를 제출하면 권리와 증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008년 9월 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유재광

시민번호: 3909616 금액: 금 1,000,000원 발행일: 2008년 7월 15

151 주권자: 남평군 550-7 일 발행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년 9월 15일

2008년 9월 15일